광주시·전남도 국비 '찰떡공조' 빛났다

시·도지사-여야 국회의원들 사상최대 규모 확보 뚝심 발휘

강운태 시장

박준영 지사

김영진 의원

최인기 의원

주승용 의원

강기정 의원

박주선 의원

김재균 의원

장병완 의원

조영택 의원

이정현 의원

배용태 부지사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배경에는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찰떡 공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일 이번 국비 확보 성과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덕분이었다며 지역 의원들을 한껏 치켜세웠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국비확보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아주 잘 됐다"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컸고, 100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38건 1225억원이 증액돼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381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한 데 대한 평가였다. 특히 총사업비 5000억원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인 차세대 다목적가속기 설치사업과 CT연구원 관련 예산을 예로 들며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무게를 뒀다.

강 시장은 "차세대 다목적가속기 설치사업 예산을 놓고 막판에 무려 3시간여 줄다리기가 있었고, 결국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영진(민주·광주 서을)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문화기술(CT)연구원도 장병완(민주·광주 남구) 의원의 노력으로 관련법이 문방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기재부의 반발이 거셌다"며 "법사위원장인 우윤근(민주·광양) 의원의 지원을 받아 오히려 기재부 장관이 광주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 묘한 상황이 만들이졌다"고 뒷얘기를 소개했다.

강 시장은 "이번 국회 예결위에 민주당 소속 간사인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과 한나라당 이정현(비례) 의원이 버티고 있어 큰 힘이 됐다"며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 조영택(광주 서갑) 의원은 RDF 예산,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은 이노비즈센터 건립예산을 확보하는 등 모든 지역 국회의원들의 측면지원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강 시장이 한나라당 의원까지 칭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전남도 역시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국고 예산 확보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국회 예결소위의 주승용 의원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 차원에서 역할을 분담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당장 F1 대회 운영비의 경우, '단 한 푼도 반영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50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여수 신항 2단계 조성 사업, 신안 지도~임자 연륙교 건설, 한의약 육성 사업 등 무려 42건의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배용태 행정부지사는 수시로 전남 국회의원들과의 논의에 나선 것은 물론 여야 예결위원 설득에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기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암호 통선문 확장 사업비 300억원을 반영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상임위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여야 예결위원들까지 설득해 사업을 관철하는 뚝심을 보였다.

이번 대규모 국비확보는 그동안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됐던 편중 예산을 어느 정도 균형있게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는 전남도와의 공조가 잘 이뤄졌다"며 "이러한 소통과 공조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U대회 수영장 입지선정 등으로 갈등구조를 보였던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사이에 모처럼 협력하고 공조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앞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모범적인 당정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통합 지도부 선출 광주 합동연설회

내일 오후 DJ센터…9인의 출마자들 지지 당부

오는 15일 민주통합당 지도부(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가 4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제주와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합동연설회에는 지난달 26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9명(김부겸·문성근·박지원·박영선·박용진·이강래·이인영·이학영·한명숙·가나다 순)의 당권 주자들이 참석해 올해 총선과 대선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끌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표 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성토와 함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광주 정신'을 강조하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부겸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는 국민주권,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야당 정통성, 박영선 전 정책위의장은 정권교체, 박용진 전 진보신당 부대표는 서민 체감 형 정치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래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변화, 이인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세대교체, 이학영 전 한국YMCA 사무총장은 쇄신과 진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통합과 포용 등을 강조하면서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할 전망이다. 친노·시민단체·세대교체론·구 민주계 등 다양한 색채의 주자들이 경합을 벌이는 만큼 각 후보 간 합종연횡을 포함한 특정 후보에 대한 공세 집중 등이 최대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당권 주자들은 합동연설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광주MBC에서 생방송 토론회를 함께 한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개편대회도 갖는다.

한편, 투표 신청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당 경선은 9~11일 모바일 투표, 14일 현장투표를 거쳐 오는 15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최종 선출한다. 2위부터 6위까지는 최고위원에 오른다. 본선 투표는 대의원(30%)과 시민·당원(70%)의 1인2표 제로 실시된다.

/최권일·이종행기자 cki@kwangju.co.kr

민주통합당, 광주·전남 공동지역위원장 5명 임명

민주통합당은 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광주·전남지역에 5명의 공동지역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전국적으로 54명의 공동지역위원장을 선임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통합에 따른 지방조직 정비 및 공정한 공천경쟁을 위해 공동지역위원장 선임을 단행했다"며 "이번에 선임된 공동지역위원장이 있는 지역구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은 상임공동위원장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는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향후 당에서 19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모 공고 후 접수 개시 일부터 이번에 인선된 모든 지역위원장직은 면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옛 시민통합당 측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 이날 지역위원장 인사에서는 ▲광주 서을 정재원 ▲광주 북갑 최철 ▲목포 강대실 ▲해남·진도·완도 윤재태 ▲무안·신안 배삼태씨 등이 선임됐다.

반면, 나주·화순지역구에 임호경, 고흥·보성에 윤민수, 영암·강진·장흥에 황옥철씨 등 시민통합당 측에서 추천한 20여명은 선임이 거부됐다.

한편,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총선 출마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 사퇴 자제를 권고해 이미 사퇴한 인사들과 형평성 문제는 물론 향후 공천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 시 선택해 준 지역 주민과의 신뢰 약속을 지키고 공약 이행을 위해서 성실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 4월 총선출마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사퇴 시한은 오는 12일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조충훈, 5일 순천서 출판기념회

조충훈 전 순천시장은 오는 5일 오후 2시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자신의 에세이집 '다시 보는 풍경, 순천' 출판기념회를 휴먼 콘서트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순천시장이 된 이후 지금까지 10년여 동안 삶의 희노애락을 겪은 일상을 정리하고, 자신의 고뇌와 담대한 순천을 위한 생각을 책에 담았다. 조 전 시장은 이날 출판기념회를 통해 순천의 명예회복을 위해 남은 인생을 순천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이학영, 시민사회단체와 대화

이학영 민주통합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가 3일 광주 서구 치평동 NGO센터에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을 갖는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이 참여한 'Change 2012 총선·대선 광주연대(이하 Change 2012)'가 초청해서 이뤄졌다.

이 후보는 지역 대표들 및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FTA대책 ▲KTX 광주-목포(무안공항) 대책 ▲광주·무안공항과 군 비행장 대책 ▲고용 및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호남의 독점적 정치지형의 개선에 대한 문제 등을 중점으로 토론할 계획이다.

박석배, 국회의장상 수상

민주통합당 서종표 의원의 보좌관인 박석배 신안지역경제활성화연구소장이 2일 군납 계약 및 납품방식 조정을 통해 농민 소득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회의장상을 받았다.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해온 박 보좌관은 18대 국회에서 주산지 직계약 유지와 납품시기 조정 등으로 국군 장병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민에게는 실질적 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군납 계약 및 납품방식의 조정을 이뤄냈다는 평을 받았다. /박지경·최권일기자 jkpark@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한, 당지지도보다 5%P 낮은 의원 교체

현역 물갈이 기준 방안 추진…인재영입 국민 공모도

한나라당이 4·11 총선에서 당 지지도보다 5%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낮은 현역들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핵심 당직자는 이날 "그동안 내부적으로 공정한 공천 기준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 왔다"면서 "일단 여론조사를 통해 당 지지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현역들을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현역 의원의 지지율이 당 지지도와 비교해 오차 범위(5%p)를 벗어나면 일단 교체대상이 된다"면서 "지지도 격차가 애매하게 오차범위, 5% 포인트 선이면 '보류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 지역에서 한나라당 지지도가 35%일 경우 해당 지역 의원의 지지율이 30% 이하면 '교체대상'으로 간주된다. 지지율이 30% 선이면 보류, 그보다 높거나 당 지지도를 웃돌면 '공천검토 대상'으로 분류된다.

여의도연구소는 이를 위해 설 연휴(1월21~24일)를 전후해 각각 한 차례씩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설 연휴 이전에 1차 잠정 '현역교체 대상 리스트'가 나오게 된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올해 총선에 나설 인재 영입을 위해 국민 공모를 추진키로 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브리핑에서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두 가지 인재영입 방식을 논의키로 했다. 전문가 추천과 국민 공모 두 가지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며 "인재영입위의 명칭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이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 방식과 관련한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2-1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2년 3월 5일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수 강 료 : ① 등록금 : 700,000원(한 학기당)
② 입학금 : 50,000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4㎝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전형료 : 5,000원
:: 혜 택 : ①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② 본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가능)

여전도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 교양과목과 성경 및 신학과목은 물론 상담학, 심방학 등 당회장을 보필하는 여전도사로서 인격을 연마하는데 목적이 있음.

여성가족부 인정
2012-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 교육일시(총100시간) ▶ 월, 화, 목, 금 오후 6:00~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2012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육교사 자격취득!!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2년 2월 20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2년 1월 16일(월) 오전 10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1년 12월 1일(목) ~ 2012년 1월 13일(금)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2년 1월13일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 문의할 곳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번지 광신대학교 교학처

나도 이제 보육교사!
1년 과정 수료 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1년에 1,700,000원 : 2011년 기준)와 훌륭한 교수진이 준비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을 지금 노크하십시오.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4주간의 현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이어야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